

4·9 총선 이슈

2 물갈이론 파괴력은

호남 고립 현실화?

총선 접전 지역서 한나라당 '씩씩이' CBS·리얼미터 '기상 대결' 여론조사

선택 아닌 필수...40%이상 바뀔 듯

공천 혁명을 통한 물갈이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참패하고 10년 만에 보수진영이 집권하면서 정치권의 시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적 성향도 이념 대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실용 모드로 전환하고 있어 각 정당들은 앞다투어 이번 총선에서의 공천 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물갈이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대선 참패로 영남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의 물갈이를 통해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호남의 정치적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에는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 분열과 대립을 반복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부

재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요 물갈이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에 힘입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경솔한 자세로 민생을 챙기기에

분열·대립 반복 정치력 부재 실망감

호남 미래 견인할 새 인물 육성해야

보다는 개혁 선점의 기득권에 안주, 기대 이하의 정치력을 보였다

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양성된 풍부한 인적 자원도 물갈이론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물갈이 대상 국회의원들과 이를 대체할 정치 신인들의 명단이 적힌 '살생부'마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2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명이 속해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참패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천 혁명을 예고한 바 있다.

공천혁명은 대통합민주신당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갈이 폭은 3~4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중신당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에 밀려 공천혁명이 실패한다면 호남에서의 고전은 물론 총선 참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도 정치 신인들을 대폭 공천한다는 방침 아래 민주당의 물갈이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폭적인 물갈이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민주당에는 최악"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공천되고 이에 반발한 정치 신인들이 민주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혼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가 계파간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손학규 대표가 과거 DJ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갈이 폭은 3~4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중신당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에 밀려 공천혁명이 실패한다면 호남에서의 고전은 물론 총선 참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도 정치 신인들을 대폭 공천한다는 방침 아래 민주당의 물갈이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폭적인 물갈이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민주당에는 최악"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공천되고 이에 반발한 정치 신인들이 민주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혼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을 4월 총선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범여권 후보들이 한나라당 예비주자들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호남의 정치적 고립'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국 구도가 계속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은 개헌저지선 확보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70석의 의석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CBS와 리얼미터가 발표한 총선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서울·경기 등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 8곳 가운데 7곳에서 한나라당 예비 후보들이 거의 두 배 이상의 지지를 차이로 보이며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 주자들을 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목포에서 박지원 전 실장이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나선다는 가정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여론조사를 붙인 결과, 박 전 실장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 전체 회의에서 "국민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당한 우세를 보였으나 당선 가능성에서는 양측의 격차가 한자릿 수 이하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에서 범여권이 특별한 반전의 계기를 형성하지 못한

다면 이번 총선은 범여권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면서 호남만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1전 12기' 강도석 광주시의원 사퇴 "총선 출마"

12번째 도전 끝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선 9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선거로 지방의회에 입문한 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의 정활동을 접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

회화화(戲畫化) 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도석 의원(무소속)은 14일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기존 정치판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시의원을 접고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직 사퇴 시한(2월9일) 직전인 다음 달 4일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뺏아 준 지역 유권자에게는 다소 미안하지만 남구에서 총선에 출마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지역민에게 심판을 받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변화·쇄신이나' '화합·안정이나'

신당, 이번엔 최고위원 인선 앞두고 술렁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 각 계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지도부가 어떤 진용을 갖추느냐에 따라 총선 공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대통합민주신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으로 민주계의 정균환 최고위원과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김상희 최고위원의 유임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인태 의원과 386 출신인 임종석, 송영길 의원 등이 허마평에 오르고 있고 재야와 초선인 우원식 의원,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두 손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동요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손 대표가 지난 13일 단행한 당직 인선에서 진정체제 구축의 의지를 보인 것처럼 최고위원 인선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경선을 주장했던 수도권 쇄신과 초선 그룹과 정동영, 김한길 그룹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지도부 구성 결과에 따라 심각한 논란을 예

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 인선에 보다 다양한 계파를 배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광주 및 정동영 그룹 뒤편으로 양형일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추미애 전 의원의 최고위원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당 고위 관계자는 "최고위원 인선 등 당 지도부 구성은 당내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 세력과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해야 된다"며 "최고위원 인선에서 제외된 일부 세력은 공천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광주·전남 인사들 어디로?

강성만·배종덕씨 서울서 공천 가능성

문상욱·김주훈·한 영씨 비례대표 유력

김창호씨 靑 희망...이만의씨는 입각설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한나라당 광주·전남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자, 비례대표(전국구) 희망자, 청와대 입성이나 입각 희망자 등으로 나누어 진다. 또 일부는 당에 남거나 정부 산하단체 및 공기업에 취업에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14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전남 인사들 중 4월 총선 희망자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호남에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크지만 공천 경쟁의 좁은 문을 뚫기에는 당내 기반이 너무 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성만 부대변인의 서울 양천을 입성이 자전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재섭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호남 출신이란 장점으로 밀어붙이면 오경환 전 의원 등과 경쟁도 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양천감에서 원희룡 의원과 힘겨운 공천 경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전남지역구에서는 우승하(목포), 김용우(여수), 설철호(해남·진도)씨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출마 희망자가 적은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노리는 인사들은 포화상태다. 이번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정될 광주·전남 몫은 2~3석 정도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득표율을 지난 대선 득표율의 85%로 생각하면 28번까지 비례대표 안정권이다"며 "이 경우 여성 몫 절반을 떼고 나면 14석이 남고, 여기에서 호남에 3~4석이 배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좁은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사로는 문상욱 전 전남도의원과 김주훈 전 조선대 총장, 한영 최고위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수십 년간 당에 기여해왔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김 전 총장은 광주·전남 인사 중 유일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는 점

에서 유리한 입장이나 대한체육회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성만 부대변인도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구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정현 박근혜 전 대표 공보특보도 계파 뒤편으로 배려가 가능하다. 한영 최고위원도 호남에선 유일한 지도부 출신으로서, 비례대표로 배려될 가능성이 크나 여성 몫으로도 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외에도 박재수 전남도당위원장, 전석홍 전 전남지사, 안재홍 광주시당 위원장, 안희석 무안신안당협위원장, 진선수 남구당협위원장 등이 전국구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수사, 전 전 지사와 안 시장위원장은 이미 비례대표 의원을 한 경력이, 안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 26번을 받았던 경험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입성을 희망하는 인사들도 상당하다. 김창호 부대변인, 양준호 선대위 조직기획위원, 기세민 언론특보, 김연욱 전남도당 대변인 등은 청와대 입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광주·전남 인사로 입각이 가장 유력한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의 경우는 장관 기용설 외에도 청와대 입성설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T (Korea Telecom) featuring a film strip graphic with the text '함께하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 and '2008년 KT(광주·전남·제주) 부문별 2008년 사업제 CD프로젝트 발간 권역권'.